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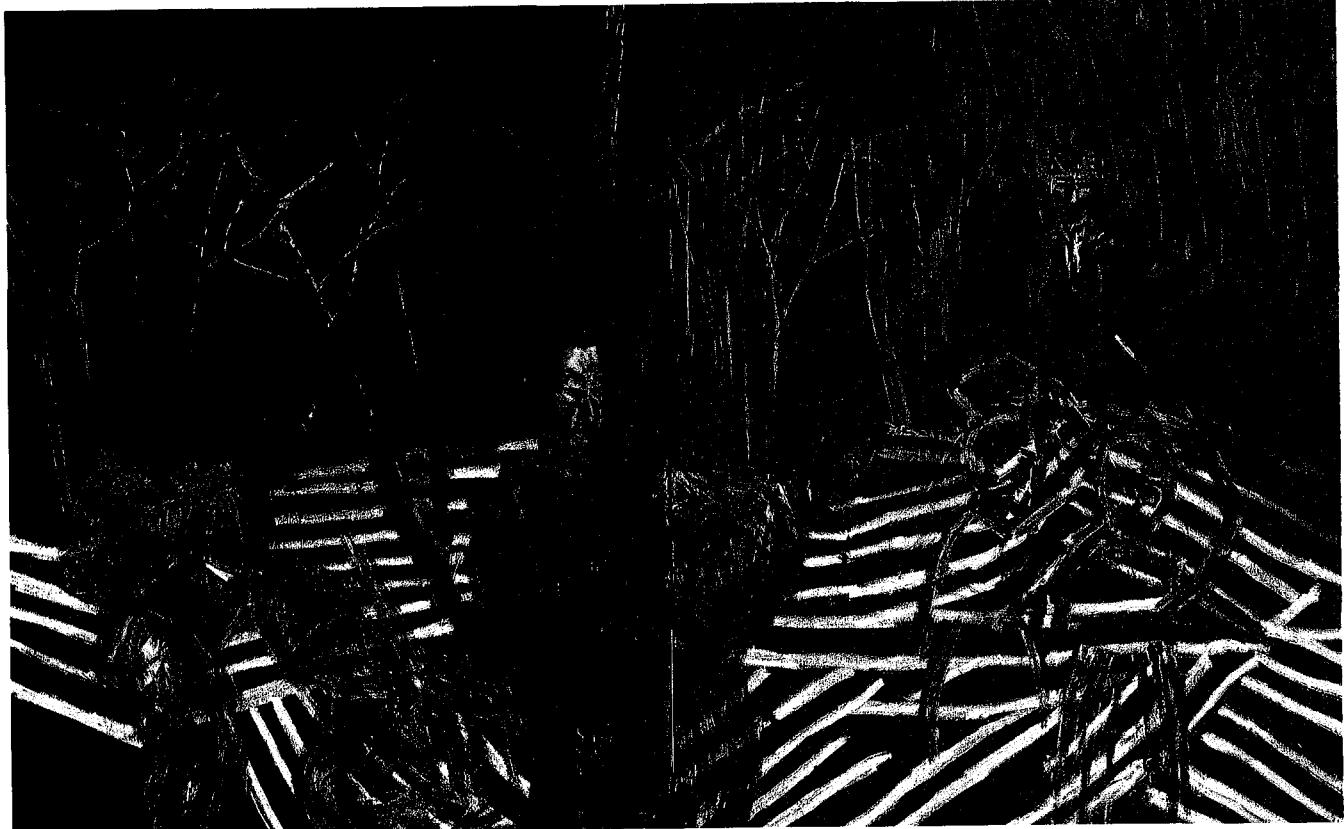
서용선

그림, 그리고 그린다는 것

徐庸宣 個人展

갤러리 이콘(92. 9. 2~10. 10)

서용선/서울미대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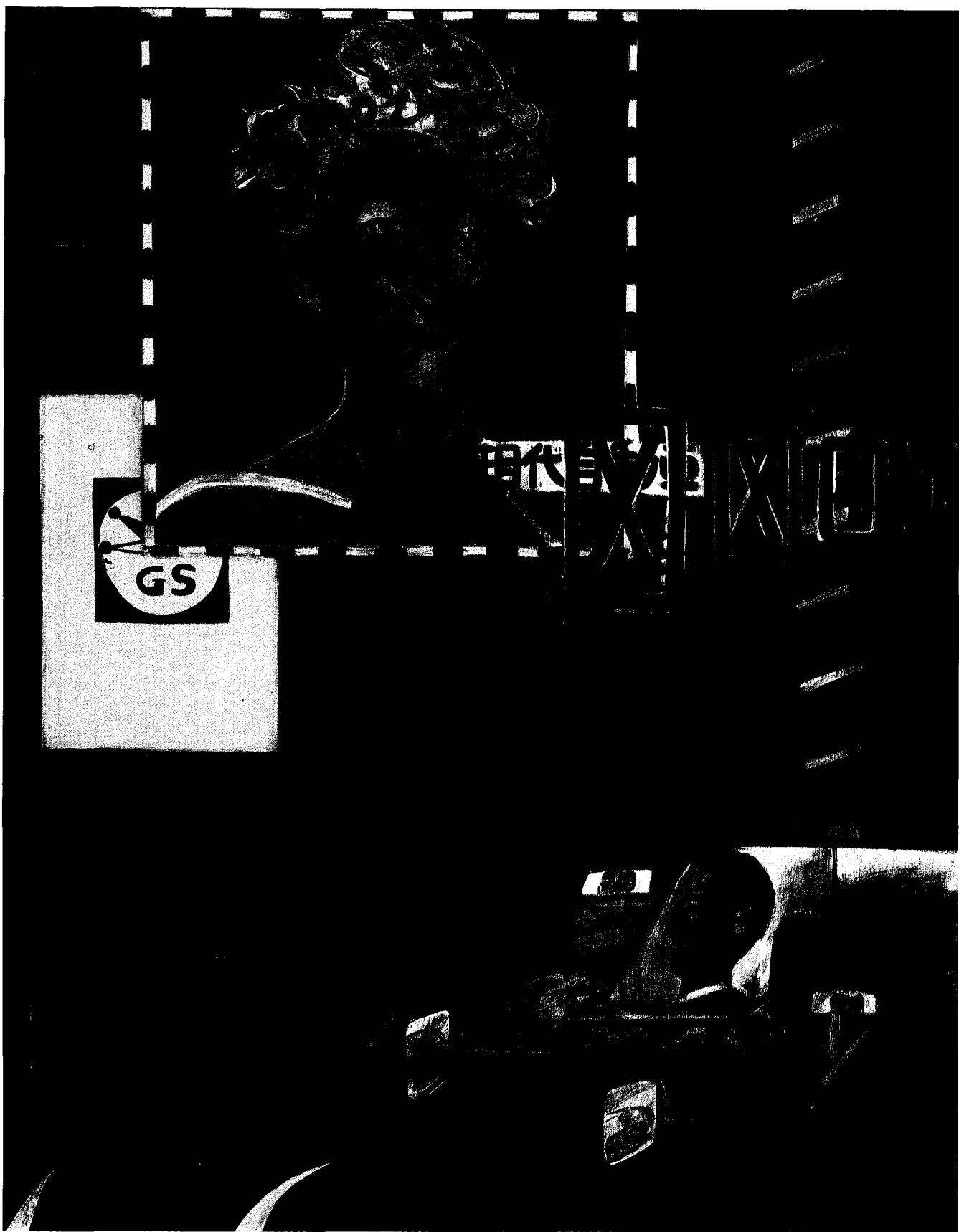


그림, 36.5×226cm, 유채,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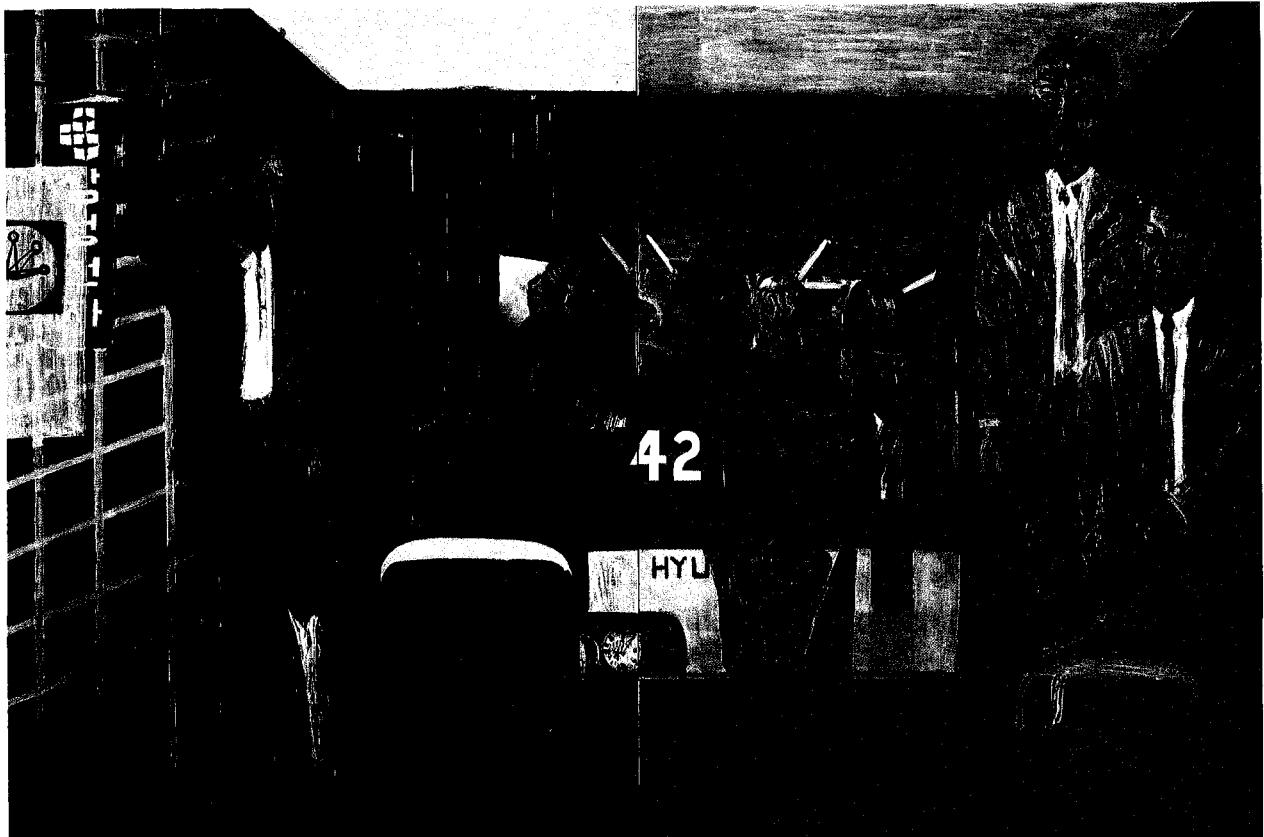
고 투명한 눈앞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그려낼 수 있는
막 가 하는 생각을 하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 맑고 투명한 세
계라는 것 자체를 의심하게 되고 세계의 구조를 밟아래 들여다 보려는
욕망을 포기하면서 문득, 나를 둘러싼 이 사회가 꿈틀거리면서 격동하
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를 둘러싼 주위와 자연의 실체들을 다시 쳐다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이 세계의 작은 부분임을
자신의 몰아적 환상공간에서 벗어나, 나라는 우주 속의 부분적 실체로
서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눈앞에 보이는 의사와 건물, 사람들 하
나하나가 나와 동등한, 나의 사고의 무한 공간을 동시에 그들도 지니고
있는 존재로서 무게있게 다가오게 되었다. 나는 안정된 걸음걸이로 도
시의 거리를 천천히 걸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여유있는 눈초리
로 나를 둘러싼 도시를 바라볼 수 있었다.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수없
이 걸어다니고 차를 기다리고, 일을 하고 많은 건물사이로 사람과 차들

이 이동하고, 그리고 땅속에서 전철이 굉음을 내며 달리고, 지하보도
속을 사람들이 부지런히 들락 거리는 것이 보였다.

운전을 하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도시 풍경의 변화가 시각속으로 흘
러 들어온다. 녹색 신호등이 커지면 모든 차량의 변속기가 1단으로 바
뀌면서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마크를 새긴 빠짝거리는 바퀴들이 회
전을 시작한다. 2단기어, 온몸에 느껴지는 섬세한 에진의 반복회전, 브
레이크, 눈앞에 의무진경의 파란옷과 흰모자가 스쳐 지나가고 앞질러
기는 프린스 운전자의 굳은 표정이 옆으로 수평이동한다. 다음 사거리
빨간 등이 커지고 8차선 사거리 횡단보도. 녹색등이 커지며 갑자기 남대
문 시장의 인파속에 들어선 느낌으로 눈앞에 떼지은 사람들이 횡단보
도를 건너간다. 앞창을 통해 많은 인파의 봄통이 머리와 발이 안보인
채 봄통들이 무리지어 정면 차창 속에서 지나간다. 좌우 앞뒤에는 차량
의 행렬로 꽉 차있다 햇빛에 반짝이는 안테나 매끄러운 유리의 곡면,



갈등, 129.5×110cm, 아크릴릭, 1992



버스속 사람들. 388×259cm. 유채. 1992

백밀러 속의 차량들 특수광택 표면 광화문과 시청 신세계 백화점앞 하늘에는 끊임없이 전광판의 광고모델과 아날로그 뉴스 속보문자들을 우리의 눈속에 퍼부어 댄다. 갤러시, 절전형냉장고 주가 500포인트 경제 속보, 엘란트라, 민자당 탈당, 갤럭시 웃을 사야 될것만 같다. 대통령 선거가 12월 중순으로 다가오고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교류협정소식이 한국산 텔레비와 냉장고가 중국대륙을 뒤덮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롯데백화점은 값비싼 물건들로 꽉 차있다. 컴퓨터를 배워야 되나보다.

아크릴물감은 색감이 자극적이긴 하나 유화보다는 은근한 느낌이 털하다. 그런데 요즘은 전보다 그 구분이 점점 힘들어진다. 수시게 통의 재료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긴 다양한 표현매체의 확산으로 생각해보면 물감이란 물질자체가 자연생태와 인간의 표현 행위 사이에서 표피적인 역할로 한계 지워진다. 더 나아가 그림을 그리

다는것 자체가 실제의 인간적 삶과는 섞여질 수 없는 허구적 장치에 가깝다. 그것은 작가가 꾸며낸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다. 하긴 작가라는 말 자체가 꾸며내는 행위를 일컫는 말인가 보다. 아니 화가라는 말이 이차피 자연과 현실의 어느 부분을 반영하려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미술가들은 실험을 한다. 비디오아트, 행위미술, 오브제 아트, 설치미술, 대지예술, 기념미술, 피카소, 바비라 크루거등의 현대미술 활동이 그것들이다.

뉴욕 맨해튼가의 미놀타 카메라 선전이 꽉찬 고층건물들의 심장처럼 헐떡이고 도오쿄오, 서울의 밤하늘에 광고판 네온모델들이 계속해서 번쩍인다. 수 없는 허상의 모델들 그들이 밤만 되면 우리의 시각을 포위한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가로 막는다. 어떻게든 이 포위망을 뚫자. 우리의 머리속에 샘물처럼 흐르는 뇌세포 물질은 그것들과 섞이지 못하기 때문에.



낙성대 입구, 좌회전. 259×194cm 아크릴릭. 1992